

사회

■ 광주·전남 유일 '3대 보훈명문가' 선정 황길현씨 일가

“代이은 ‘나라지킴이’ 자랑스럽죠”

아버지 독립운동가 아들은 5·18때 사망
6·25때 부상 당한 형님도 국가유공자

일제에 저항했던 의병장의 아들
이자 5·18 민주유공자의 아버지인
황길현(81·광주시 남구 주월동·사
친)씨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은
덕으로 돌아왔다며 “내 아버지라
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를 하나
면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
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5·18이 있는 5월은 가슴속에 묻
은 아들이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인 6월에는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신양하느라 여가지거 바쁘게 움직
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보훈청이 황씨
일가(독립운동가 황병화-국가유공
자 황봉현-민주유공자 황호걸)을
“3대(代) 보훈명문가”로 선정해 더
욱 그렇다. 현재 보훈청에 등록된
유공자 중 광주·전남에서는 황씨
일가가 유일하다.

2일 광주공원에서 만난 황씨는
“모든 게 항일 투쟁을 펼쳤던 아버
님의 덕”이라며 “그 뜻이 피로 이
어져 형님(황봉현·6·25전상군경)
과 둘째 아들(황호걸·1960~1980
년)에게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답답하게 밝혔다.

황씨의 부친 황병화(1876~
1931) 선생은 광양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포수 100여명을 모집 의
병을 일으켰으며 만주와 상해 등
지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목숨을
치른 독립운동가(1968년 건국훈
장 독립장 추서)다.

형님(1928~1998년) 또한 그랬
다. 그는 6·25가 발발하자 친구 6
명(2명 사망 4명 부상)을 설득해 자
원입대 했고 그해 12월 양구지구 전
황씨는 “아버님 때문에 일가가

투에서 부상을 당해 1963년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했다.

황씨는 “교적이 있었던 형님이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 쓴소리를
하다 해직되기도 했다”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습이 아버지
를 꼭 빼닮았던 것 같다”고 회상했
다.

자신의 이야기를 묻자 그는 한사
코 고개를 저었다. 어릴 적 목숨 일
을 배웠고, 서커스 극단에 있으며
전국을 유랑했던 자신이 아버지나
형님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정중하게 행동했고,
아버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병장을 둔 아버지 때
문에 왜놈들에게 고문과 학대 온갖
고초를 겪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며 눈물
을 글썽였다.

광주공원경로당 회장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사회활동에도 열심이다. 배
움이 적었지만 아버지 책(傳記)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라사랑의 의미
를 가르치고, 정의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공복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추모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는 “하루빨리 광주공원 인근에
추모탑을 세워 뜻을 기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밀밭 사이길로...
휴일인 3일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대에서 열린 제 6회 우리밀 축제를 찾은 한 가족이 밀밭 사이길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낮 최고 30도
구름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Table with tide information for the East and West Seas, including high and low tide times.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Gwangju, showing daily high and low temperatures.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2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
은 4일부터 29일까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 2학기 국가장학
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
조7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1학기
에는 150만여명이 신청해 83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소득 7분
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2012년 1학
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
점)이상인 국내 대학 재학생(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
해야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70점 이
상이면 된다.

지원받고 싶은 학생은 한국장학재
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관
련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팩스(0507-
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하면 된다.
신청일이 마감일을 포함해 24시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고지서
가 나올 때 장학금을 받은 만큼의 금
액이 우선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된
다. 상담센터 1666-5114. /연필스

5·18 기록물 공개행사 성료... 전국 1500명 다녀가

미 백악관 기밀문서 등 관심
전시된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15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여했으며 서
문·경기, 대구 등 전국에서 시민·학
생들의 단체 관람도 이어졌다고 재단
은 3일 밝혔다.
특히 공개 기록물 중에는 1980년 5
월 22일 국무부, 국방부, 합참 관계자,
CIA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기록한
미국 백악관 문서도 포함되어 있어 눈
길을 끌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
후 미 백악관에서 특별대책반을 구성,
‘체포키라’는 암호명으로 특별 관
리하던 한국과 관련된 기록물 중 하
나로 당시 회의에서는 “광주에서 무
력을 사용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는 결론을 전하고 있어 미국이 5·18
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
게 하는 문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
재된 5·18기록물 등을 비롯하여 5·18
카이브센터가 가톨릭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올해 연말 가톨릭
센터의 이전이 완료되면 2013년 리모
넬링을 거쳐 2014년 5월 공식개관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보훈청 ‘나라사랑 큰 나무기’ 계양식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은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오동동 정부광
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광주분부세
관장,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합동청사
에 입주한 각급 기관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큰 나무기’
계양 행사를 가졌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기 달기 운
동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패
달링 및 노래제창, 나라사랑 큰 나무기
계양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or JA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ur itinerar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